더 발심하고 깨어 있으라

현불논단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부처님 재세 시 여성 신도를 대표하는 분이 위사카(Visākhā)다. 이 위사카는 동원정사(東園精舍)라는 사찰을 보시했는데, 이곳에 비구니 스님들이 살고 있었다. 당시 종종 수백여 명의 여성 신도들이 재일(齋日)에 동원정사에서 계를 지키며 스님들과 함께 수행했다. 오후 늦게 위사카가 그녀들에게 "이곳에서 어떤 소원을 갖고 계를 지키며 기도했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제각각이었다.

나이 많은 여인은 죽은 뒤에 천상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했고, 중년 여인은 자기 남편이 첩을 들이지 않기를 원했으며, 막 결혼한 여인은 첫아들을 낳기를, 처녀들은 백마 탄 왕자를 만나기를 소원했다. 위사카는 여인들을 데리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갔다. 위사카가 부처님께 여인들의 소원을 이야기하자, 부처님께서 다 경청한 뒤에 말씀하셨다.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은 중생 세계의 당연한 이치다.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노쇠하며 병들어 죽어 간다. 삶이 순식간에 지나가거늘, 어찌해서 그대들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생사윤회의 밧줄로 자신들을 꽁꽁 묶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한 뒤에 부처님께서 다음 게송을 말씀하셨다. "소 치는 목동이 채찍으로 소를 몰아 목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늙음과 죽음'

행복·평안함에만 머물러선 안 돼
고(苦) 벗어나 진정한 행복 구해야
바른 마음으로 수행 정진하길

이 목숨을 순식간에 (저세상으로) 몰고 간다.(〈법구경〉 #135)"

독자님들은 부처님께서 여인들에게 당부한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는가? 필자는 근자에 사찰 불교대학에서 불자들을 만나다 보니, 부처님께서 여성 불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삶은 순식간에 지나감이요, 무상하거늘 고작 현 삶의 안일함만을 추구해야 하는가?

사찰 불교대학에서 강의하는 도중에 종종 "왜 여러 종교 가운데 불교를 믿게 됐느냐?"고 물을 때가 있다. 여러 답변들이 나온다. 답변 중 가장 많은 것이 '행복하기 위해', '편안함을 위해'라는 것이다. 그러면 또 묻는다. "불교를 믿고 행복합니까? 혹 편안한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대체로 아직 찾지 못했다고 답한다. 그럼 언제쯤 행복을 느끼고, 언제쯤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까?

언제부턴가 불교의 획일화된 명제가 '현재의 안일 추구'로 되어 버렸다. 왠지 불교라는 종교의 색깔이 희석된 느낌이다. 수십여 년 전, 여성들의 권익이 낮고 문맹인이 많았던 시대에는 사찰에 와서 절하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훌륭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편안함을 위해 불교를 믿는 것이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생사라는 번뇌의 고(苦)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離苦得樂]을 추구해야 한다. 여성 불자들도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즉 경전을 공부해 진리의 맛[味]도 보고 명상도 하며 기도를 통해 삼매도 느껴봐야 한다. 더불어 봉사를 통해 이타(利他)의 기쁨도 경험해야 한다.

여성 불자들이여! 지금까지도 훌륭했다. 하지만 더 발심하자. 깨어 있어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 직전 하신 말씀을 소개하며 글을 마친다. "불자들이여!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장애인 포교, 마음이 길을 바꾼다

세간과 출세간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2025년이 이제 이 주일 남짓 남았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면 마냥 밝지만은 않았다. 2026년의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아 마음이 무거워진다. 특히 장애인들과 일상을 함께하다 보니, 그들에게 다가오는 삶을 어떻게 살펴야 할지 더 깊이 고민하게 된다.

그렇기에 더욱 마음속에 작은 빛 하나라도 지펴야 할 때다. 밝은 마음은 번져 나가고, 번진 마음은 또 누군가의 하루를 바꿔 놓는다.

흔히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들 한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이 삶의 무늬를 바꿔 놓는다는 말이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이 마음가짐만 고쳐도 인생 전체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인생을 바꾸는 힘은 바깥 조건보다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 진리는 오래전 우리 선지식들의 일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원효 대사는 당나라로 향하던 길, 어느 무덤가에서 밤을 지내며 갈증이 나 바가지의 물을 마셨다. 그토록 달고 시원하던 물이 아침에 보니 해골에 고인 물이었다. 놀람과 구역질 속에서 문득 깨달음이 일었다.

달라진 것은 오직 자신의 마음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세상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가르침을 남겼다.

불편과 고통 외면 않는 마음
장애인 포교와 신행 길 넓혀
따뜻한 새해 위해 마음바꿈 要

이 깨달음은 오늘 우리 사회, 특히 장애인의 신행과 불교복지의 길에서 더욱 깊게 다가온다. 누군가에게는 절 마당의 작은 턱 하나, 법당 문턱의 손잡이 하나가 그저 '조금 불편한 요소'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법당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높은 벽이 된다. 그러나 그 벽 역시 세상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 벽을 낮출 수 있는 힘은 결국 우리의 마음먹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다른 이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마음,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신행의 길을 바꾸고 장애인 포교의 방향을 열어 준다.

불교의 자비는 그저 마음속에 머무는 정서가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현실에서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 경사로 하나, 점자 안내 하나, 이동식 법당 의자 하나, 수어와 자막을 갖춘 법문 하나, 이 모든 것이 오늘날의 자비행이다.

몸이 불편한 이들이 누구보다 편안하게 부처님 전에 앉아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일, 바로 거기서 마음의 자비가 현실의 길을 고쳐 만드는 순간이 열린다.

행복도, 깨달음도, 신행의 문턱도 결국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나 그 마음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는 마음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같은 어려움도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불자장애인 전체의 포교와 신행의 길은 더 넓어지게 된다.

이 주일 정도 남은 올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마음이 달라지면 길이 보일 것이다. 그 길 위에서 2026년은 분명 조금 더 따뜻한 해가 될 것이다.

社 說

사찰 산불 방재, 더 미룰 수 없다

올해 3월, 우리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천년고찰 고운사가 전소되는 참담한 상황을 목도했다. 9개월여가 지난 지금, '자연복원'을 선택한 고운사 사찰림에는 새 생명이 움트고 야생동물이 발견되는 등 뚜렷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사찰 방재 체계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계종 문화부가 개최한 '문화유산 보유사찰 재난 대응시설 마련 전문가 좌담회'는 그 위기 수준을 명확히 드러냈다. 조사 대상 98개 전통사찰 가운데 65%가 산불위험도 '높음' 이상, 그중 19곳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다. 기후위기 시대 전통사찰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 주는 단적인 지표다.

전통사찰은 대부분 산중에 자리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은 산불 발생 시 치명적 약점이 된다. 지형적 특성으로 소방 인력 접근이 어렵고, 주변 숲이 거대한 연료로 변화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가 키운 대형 산불의 일상화
불교계·정부 함께 보존 대책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현행 방재 시설로는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옥외소화전이나 소화기, 방수총 같은 기존 설비는 초기 화재나 단일 전각의 불길을 끄는 데는 활용할 수 있으나, 여러 발화 지점이 동시에 발생하는 '광역 산불'에는 사실상 무력하다. 김동현 전주대 교수는 "현재의 설비 규모로는 산불 확산을 지연시키기조차 어렵다"며 실제 피해 분석을 바탕으로 "최소 30배 이상의 설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운사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확인해 준다. 산불은 발생 이틀 뒤 사찰에 도달했고, 사찰은 나름의 대응을 시도했음에도 불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 교수는 "수막 소화시설 타워 14기만 설치되어 있었어도 전소는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특정 사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사찰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는 재난 유형이다. 기존 경험치를 넘어서는 산불의 규모와 속도를 고려한 방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사찰을 지키는 일은 불교계만의 과제가 아니다. 사찰과 사찰림은 건축·조형·경관·생태가 결합된 복합문화유산으로 국가가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현재 사찰림 관리는 국가유산청과 산림청으로 이원화되어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 사찰림을 '국가문화유산 단위'로 인식하고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제안이다.

방재 설비 역시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이는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페인 발렌시아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설치한 아쿠아돔처럼, 수막 시스템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인데도 사찰의 재정 형편에 따라 방재 능력이 천차만별인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자연 재난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화유산을 지켜내기 위한 체계적 준비는 분명 가능하다. 불교계 각 종단과 정부, 지자체가 협력해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불 방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12월 17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12월 17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12월 17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공덕암
• 주 지 : 승현 스님 (속명:오정식)
• 주 소 : 경북 성주군 월항면 세종대왕자태실로 294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